

<p>5. 2024.10.23.수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엄마 걱정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기형도</p> <p>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.</p> <p>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.</p> <p>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.</p> <p>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</p> <p>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 뜨겁게 하는 그 시절, 내 유년의 윗목</p>	<p>6. 2024.10.23.수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바다가 보이는 교실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정일근</p> <p>참 맑아라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, 열이가 착하게 담아놓은 유리창 한 장</p> <p>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섬 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 가을 바다 한 장</p> <p>열이의 착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아아, 참으로 맑은 세상 저기 있으니</p>
<p>7. 2024.10.23.수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산유화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김소월</p> <p>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.</p> <p>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.</p> <p>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.</p> <p>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.</p>	<p>8. 2024.10.23.수 15:05까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철길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안도현</p> <p>혼자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이렇게 나란히 떠나가리</p> <p>서로 그리워하는 만큼 달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우리 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는 날까지 혼자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</p>